

■ 중국 국무원, 희토류 관리 조례 발표

- 중국 국무원은 희토류 산업의 체계적 성장과 생태환경 보호, 자원 안보 등을 위해 ‘희토류 관리 조례’(이하 ‘조례’)를 발표하고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힘.¹⁾
 - ‘조례’는 희토류 부문 최초의 조례로 총 32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희토류 자원은 국가 소유로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희토류 자원을 불법 점유하거나 훼손할 수 없다고 명문화 함.²⁾
 - 주요 내용으로는 ①희토류 채굴과 제련·분리 관리 조건, ②총량 규제 제도, ③희토류 종합 활용 규정, ④제품 이력 제도, ⑤유통 관리, ⑥비축시스템 구축, ⑦연구개발 지원 등이 있음.³⁾
 - **(희토류 채굴과 제련·분리 관리 조건)** 공업정보화부는 희토류 업계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관련 정책을 제정하고, 희토류 채굴과 제련·분리 기업을 선정 및 공표함.
 - **(총량 규제 제도)** 희토류 매장량과 종류, 산업 성장, 생태환경 보호, 시장 수요 등을 고려하여 채굴과 제련·분리 총량을 규제하며, 관련 기업은 규제를 엄격히 준수해야 함.
 - **(희토류 종합 활용 규정)** 희토류 활용 기업은 희토류 제품을 원료로 하는 생산활동 종사를 금지함.
 - **(제품 이력 제도)** 희토류 채굴, 제련·분리, 금속 제련, 종합 활용, 희토류 제품 수출을 하는 기업은 제품 유통 및 이력 정보를 기록하고, 공업정보화부는 관련 부처와 공동으로 희토류 제품 이력 정보 시스템을 구축함.
 - **(유통 관리)** 불법 채굴 및 제련·분리 된 제품을 구매, 가공, 판매, 수출을 금지함.
 - **(비축시스템 구축)** 희토류 비축 시스템을 구축하여, 비축 제품 종류와 수량을 지속 증대함.
 - **(연구개발 지원)** 희토류 산업의 신기술, 신제품, 신소재, 신설비 등과 관련한 연구개발과 활용을 지원함.
- 희토류는 중국의 전략적 자원이며 매장량이 풍부하지만, 불법 채굴, 자연 훼손, 무분별한 생산, 불법 매매, 기술 부족 등의 문제점이 있어 왔음.
 - 2012년 ‘중국 희토류 현황과 정책’에서 중국의 희토류 업계가 빠르게 성장하였지만, 지나친 개발로 환경훼손이 발생하였으며, 수십 년간 무분별한 채굴로 중국의 희토류 매장량이 빠르게 감소하여 광산 자원이 고갈되기 시작하였다고 언급함.⁴⁾
 - 또한, 중국은 일본이나 미국과 달리 관련 기술력이 부족하여 중저품위의 희토류를 대량 수출하고 고가의 고품위 제품을 수입하기 때문에 정작 수익을 내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남.
 - 중국은 희토류 자성소재 최대 생산국이지만, 2019년 수출 평균가격은 46.59달러/kg, 수입 평균가격은 84.89달러/kg를 기록하였음.
 - 정부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희토류를 채굴하는 위법 행위도 기승을 부렸는데, 희토류 광물

1) 中國經濟網, 2024.7.1.

2) 國務院, 2024.6.29.

3) 界面新聞, 2024.7.1.

4) 界面新聞, 2024.7.1.

매장지가 넓고 알아 채굴하기 쉬운 남부지역이 특히 대상이 되었음. 그러나 관련 규제 방안이 없어 이를 단속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

- 이에 공업정보화부는 2021년 ‘조례(안)’을 제정했을 당시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희토류 산업 관련 규정을 법제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힘.
- 샤먼대학 중국에너지정책연구원은 희토류 관련 업계에서는 처음으로 마련된 조례로 희토류 업계의 체계적 성장과 생태환경 보호, 자원안보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힘.